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문



강릉시의회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문

태백산맥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는 영동과 영서지역은 1995년 도농 통합 당시만 해도 비슷한 인구규모를 보였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도청소재지 춘천과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지정된 원주의 발전과는 반대로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 소멸의 징후마저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속된다면 단지 영동지역의 문제가 아닌 바로 강원도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이고, 이것의 시작은 강원도청 제2청사의 강릉 유치입니다.

가까운 예로 경기도의 경우 행정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의정부에 두었고, 경상남도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라는 이름으로 진주시에 제2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현재의 환동해본부는 강원도 수산사무소를 시작으로 50여년이 넘게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강원도 제2청사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이 무색하게 해양수산 외에 다른 기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영동지역은 강릉~제진 간 철도연결사업, 동서고속전철 추진으로 북방경제의 전초기지 역할과 함께 동해중부선 고속화 사업, 서울양양고속도로, 플라이강원 등 물류·교통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동해권 국제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동지역 내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영동권의 중심지인 강릉에 위치한 환동해본부의 확대개편과 신축을 통한 제2청사 설치로 영동과 영서의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는 강원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영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동해본부의 이전·신축을 통한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 12. 17.

강릉시의회